

6월 7일(월) / 전도서 7-9

▶ 내용요약 : 전도서 7장의 전반부(1~14절)는 '~보다 낫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8장은 왕 앞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 언급한 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 즉, 죄인이 번성하고 장수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지혜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다. 이에 전도자는 주어진 오늘을 즐기고 충실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했다. 9장에서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고 그 날들을 충실히 지내라고 권하고 있다.

▶ 질문 : 아래의 빈 칸을 채우시오. (7장)
“지혜로운 사람의 ()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 생각하기 : 인생보다도 더 허무한 것도 없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6월 10일(목) / 사 1-4

▶ 내용요약 :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이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선포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 특히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약한 행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다. 2장에서는 여호와와 날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을 촉구했다. 3장에서는 유다의 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메시아의 때에 이루어질 회복을 그리면서 남아 있는 자가 누릴 미래의 소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질문 : 이사야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가? (2장)
▶ 생각하기 : 선한 행실, 삶의 실적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종교적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로마서 12:1-2, 야고보서 2장을 읽으라)

6월 13일(일) / 사 11-14

▶ 내용요약 :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집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의 임재로 인해 이 땅에는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에 12장에서는 돌아선 주의 진노로 인하여, 주의 안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

6월 8일(화) / 전 10-12

▶ 내용요약 : 전도서 10장은 주권자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우매한 자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했을 때 일어나는 혼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가 유익함을 교훈하고 있다. 11장에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다. 12장에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였다.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 질문 : 아래의 빈 칸을 채우시오. (12장)
“너는 ()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생각하기 :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냈다.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무가치한 것들을 파헤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혹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자.

6월 11일(금) / 사 5-7

▶ 내용요약 :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6장에는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환상 중에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다. 7장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 한편 이사야는 주께서 주실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 예언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라 하리라”

▶ 생각하기 :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자.

했다. 한편 13-14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수 없다. 이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강대국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월 9일(수) / 아 1-4

▶ 내용요약 : 비록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인용하지 않으셨지만, 아가서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노래 중의 노래이기도 하다. 1장은 솔로몬의 아가임을 밝히면서 남녀 간의 사랑 고백과 서로에 대한 갈망을 묘사하고 있다. 2장에서도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계속된다. 특히 10절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구절은 오늘날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15절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함으로써, 사랑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장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움 가운데 찾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후반부에는 여인을 맞이하기 위한 솔로몬의 가마행렬을 그리고 있다. 4장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사랑을 노래했다.

▶ 질문 : 포도원을 허는 무엇을 잡으라고 했는가? (2장)
▶ 생각하기 :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닌 예수님과 사랑으로 인해 존재함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분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며, 더욱 그분을 갈망하는 은혜를 경험하자.

6월 12일(토) / 사 8-10

▶ 내용요약 : 이사야 8장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남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아가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9장에서 이사야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기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 한편 10장에서는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한 앗수르는 교만히 행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또한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셨다.

▶ 질문 : 하나님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은 나라는? (10장)
▶ 생각하기 : 오늘날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설교자 뿐 아니라 청중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죄에 대한 고발보다는 세속적인 위로와 축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참된 빛을 누릴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응답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자.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1장)
“()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생각하기 :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목록을 적어보자. 그리고 그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보자. 우리가 두려워하며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마태복음 10:28을 읽으라)